

소설로 만나는 부처님 말씀



소설경(小說經)
김정빈 지음
문학의 문학 펴냄
2만2천원

1984년 출간된 <단(丹)>의 작가 김정빈이 27년 만에 내놓은 장편 구도소설이다. 이번엔 팔만대장경을 비롯해 남방불교에 전승된 '빠알리 경전'과 티베트에서 전해오는 '티베트 대장경' 등 3종의 불교 경전을 토대로 한 부처님과 부처님 말씀 이야기다.

"태어난 자는 왜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가?" 가족 모두를 잃게 된 열여섯의 라자는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의문을 갖기 시작한다. 타인의 먼 죽음이 아닌 자신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 절박한 '죽음'에 대한 답을 찾아 라자는 길을 떠난다.

"혹 죽음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아무도 대답해 주지 못한다. "혹 삶에 대해 좋은 말을 해주실 만한 분을 아시나요?" 그러나 길 위에서 만난 그 누구도 라자의 그 간절한 질문에 대답해 주지 못한다. <소설경>은 도리전에 난 천인 부부 라자와 시리마의 시점에서 시작된다. 시작은 라자의 전생에서부터다. 어느 날, 답을 찾아 헤매던 라자는 한 소녀로부터 어느 마을에 부처님이 와 계신다는 말을 듣는다. "그 분은 늘 죽음에 대해, 그리고 삶에 대해 말씀하시는 분이지요." 라자는 그 마을을 향해 길을 떠난다.

"라자야,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냐?" "예, 저 또한 부처님을 뵈기 위해 야쿠 마을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르신, 부처님을 뵈는다는 것은 더없이 영광된 일인데 틀림이 없습니까, 어르신께서는 이토록 몸이 쇠약하신데 어떻게 구도 여행을 떠나신 것입니까?" "아가야, 너는 마치 쇠약한 몸으로는 구도 여행을 떠날 수 없다는 듯이 말하는구나. 그러나 아가야... <중략> 네 말처럼 나는 늙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오오, 너는 알아야 한다. 나의 이 여행은...생사윤회의 여행보다는 오히려 쉽다는 것을..."

구도소설의 문장에는 법(法)의 형질이 들어있다.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문장들 곳곳에 가르침과 깨달음의 '은유'들이 배치되어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경전을 바탕으로 한 <소설경>은 부처님이 활동했던 기원전 4~5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초기 경전들의 이름들로 각 장을 구성했다. 특히 빠알리 대장경에 보이는 기사(記事)에 작가가 상상력을 더했다. 작가는 사상면에서 대체로 빠알리 대장경에 근거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한하여 한역 대장경의 사상을 원용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전반부의 내용은 빠알리 대장경의 사상과 대부분 일치하고, 후반부에서는 빠알리 대장경과 한역 대장경의 사상을 혼합하여 반영했다.

라자와 시리마는 하늘 구도자로서 인간계에 내려와 부처님의 특별한 제자가 되고,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출가하기 전 사계야구의 왕(부처님이 출가함으로써 비게 된 태자 자리를 이어받아 왕이 된 사람)이었던 밧디야를 만나고, 밧디야는 자신의 스승인 부처님의 수제자 사리뱃따 마하테라에게로 간다. 그 사



해인사 장경각에 보관된 팔만대장경 경판

이, 부처님은 전에 천재적인 음유시인이었다가 밧디야가 왕이었던 시절 그의 왕비 아이유타를 유혹하여 간음한 적이 있고, 절대신 후후와 신앙에 빠져 종교 전쟁을 일으켜 수 만 명을 죽게 한 빙기사를 만나기 위해 인도 남서부 슈바라카를 향한다. 이에 사리뱃따 마하테라 또한 밧디야 등과 함께 부처님과 합류하기 위해 슈바라카로 떠나는데, 그 사이에 수억 명의 천왕·천인들이 사리뱃따와 동행하여 부처님을 향해 간다. 마침내 여섯 달 뒤에 부처님과 사리뱃따, 슈바라카 시민들, 그리고 삼천대천세계에서 모여든 무량대수(無量多數)의 천왕·천인들 앞에서 빙기사는 부

처님으로부터 "그대는 장차 부처가 되리라"는 기(記)를 받는다. 소설은 그렇게 되기까지의 이야기로, 많은 서사와 불교의 교설이 다채롭게 전개된다. 특히, 작품의 실재상의 주인공인 빙기사, 아이유타, 밧디야의 인연이 전생으로부터 현생으로 전개되는 후반부에 이르러 서사는 매우 극적이면서도 감동적으로 다가온다. 작품의 문장은 불교 초기 경전처럼 소박하고 단순하면서도 명료하게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부처님이 오신다! 부처님이 오신다!" 부처님은 맨 앞에서 일행을 이끌고 있었다. 마침내 부처님과 빙기사가 만난다. 부처님의 발걸음이 빙기사 앞에 이르고, 빙기사는 앞드린 자신의 눈앞에 흠먼지 묻은 두 발이 나란히 멈추어 서는 것을 본다. 그는 자신의 두 손으로 부처님의 두 발에 묻어 있는 흠먼지를 닦는다. "빙기사여!" 빙기사는 차마 부처님을 우러러 볼 수 없다. 그것은 자신이 지난 날 어리석은 생각으로 지은 죄업 때문이다. 빙기사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그리고 부처님을 올려다보는 순간 빙기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저자 김정빈은 1984년에 소설 <단>을 낸 후 불교에 귀의했다. 그리고 2010년 그는 25년간의 구도기(求道期)를 통해 배우고 얻은 바를 문학적으로 형상화기로 결심하고, 1년 4개월의 집필 끝에 소설을 완성했다. 저자는 '단테의 <신곡>과 괴테의 <파우스트>,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서양문학들이라면, <소설경>은 동양 문명의 정수인 불교를 바탕으로 한 자기구원적인 문학이다"고 자신의 소설을 소개했다.

박재원 기자 wanihollo@hyunbul.com

명쾌한 능엄경을 더 명쾌한 능엄경으로

수능엄경·중

반라밀제 편역 | 천명일 해설 | 지혜의 나무 펴냄 | 2만원



밀교와 선종을 함께 설한 능엄경을 의역에 가까운 해설로 풀어 쓴 책이다. 상권이라는 중권으로 능엄경 제4권에서 제7권까지의 내용을 담았다. 능엄경(楞嚴經)은 대불정 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의 약칭으로, 수능엄경, 대불정수능엄경, 대불정경, 만행수능엄경 등으로도 불린다. 능엄경은 인도의 나란다에서 비장(秘藏)하면서 인도 이외의 나라에는 전하지 말라는 왕명으로 인해 당나라 이전까지는 중국과 한국 등에 전래되지 못하다가 705년에 종인도 스님 반라밀제가 한역하면서 전래됐다. 능엄경은 스님들을 가르치기 위해 편찬된 교과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불교에서는 금강경, 원각경, 대승기신론 등과 함께 강원의 사교과 과목으로 채택된 경전이다. 이번 중권에서는 오행의 생인과 중생들이 무상도를 구하려 할 때 어느 수행을 해야 쉽게 성취할 수 있는지를 밝히는 문수사리법왕자의 계승 등을 알기 쉬운 해설로, 난해하다는 수능엄경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한문 아래에 한글로 토를 달아 일반인도 경문과 함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능엄경 4권~7권 내용 답아

경문과 함께 쉽게 읽도록 배려

이 경전의 가르침은 분별하는 버릇을 버리고 자신에게 불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가르침은 대소승의 현교뿐만 아니라 밀교사상까지 가미되어 있는데, 선정을 역설하고 있어 밀교쪽보다는 선가에서 환영하고 있다. 제1장 '수능엄경 제4권'에서는 여래장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중생들이 미혹하게 된 원인과 업을 짓는 근원, 수행할 때의 마음가짐 등을 설명하고 있으며, 제2장 '수능엄경 제5권'에서는 수행할 때 풀어야 할 업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밝힌다. 제3장 '수능엄경 제6권'에서는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갖가지 몸으로 화현함을 밝히고, 사바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가장 쉬운 방법이 관음의 능문(能聞)의 수행문(修行門)임을 설한다. 이는 '범화경'과 함께 우리나라 관음신앙의 전파에 크게 영향을 준 부분이기도 하다. 마지막 장 '수능엄경 제7권'에서는 해탈의 문에 들어가는 주문인 능엄다라니를 설하고 그 공덕을 밝히고 있다. <수능엄경·중>은 만고에 풀 수 없었던 물리와 성리의 근본 뿌리를 명쾌히 밝힌 부처님의 말씀을 한 층 더 쉽게 전달하려고 애썼다. 어떤 경전이든 마찬가지로 지정한 중생을 격정하는 부처님의 깊은 마음과 따뜻한 말씀이 있다. 박재원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2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3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해인	생앤파크스
4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출판
5	받아들임	티라 브래	불광출판사
6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	공감
7	이제 마음이 보이네	백성호	중앙북스
8	탄허록	탄허	휴
9	경허	일지	민족사
10	해탈장엄론	김보빠	운주사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생명, 나눔, 수행, 행복공동체 마곡사

태화산 마곡사

한상길·홍대환 지음 | 활불교문화단 펴냄 | 1만8천원



마곡사

신흥사 편부터는 그 동안 함께 책을 만들었던 활불교문화단이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다. 사찰문화의 보존과 현대적 계승이라는 발간의 취지를 이어받은 이번 <태화산 마곡사>는 마곡사의 역사와 가람의 배치, 관련 인물과 문화재 등을 통해 마곡사가 복지 생태 문화 공동체를 추진하게 된 계기와 발전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하고, 오늘날 '찾아가는 포교', '행복공동체'를 추진하는 마곡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준다. 마곡사가 있는 공주는 백제의 두 번째 수도였다. 공주는 누구나 차지하고 싶었던 땅이기도 했지만, 전란 등을 피하기에 좋은 장소이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공주는 역사의 중심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겪은 땅이 되었다. 더불어 가장 힘든 시기에 있는 사람들을 넉넉하게 품어주었던 땅이기도 했다. 그 넉넉한 땅에 깃든 도량 마곡사는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명찰 중의 하나로, 조계종의 25개 본사 중 6교구 본사다. 마곡사의 창건은 대부분의 기록이 643년 자장율사가 창건했다고 쓴다. 마곡사의 창건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 책은 안향덕 스님과 만공 스님, 백범 김구 등 마곡사를 스쳐간 인물들을 소개한다. 옛 스승들의 흔적을 더듬고 나면 책은 해탈문과 천왕문, 대광보전, 대웅보전 등 마곡사에 깃들여 있는 전각들과 그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어서 백의관음벽화를 비롯한 성보를 소개하고, 마곡사의 법회와 행사, 특히 2004년 '천년 땅 푸르게'라는 주제로 열려온 마곡사 신록축제와 마곡사의 행복공동체 가꾸기 등 마곡사의 현재와 비전을 소개한다.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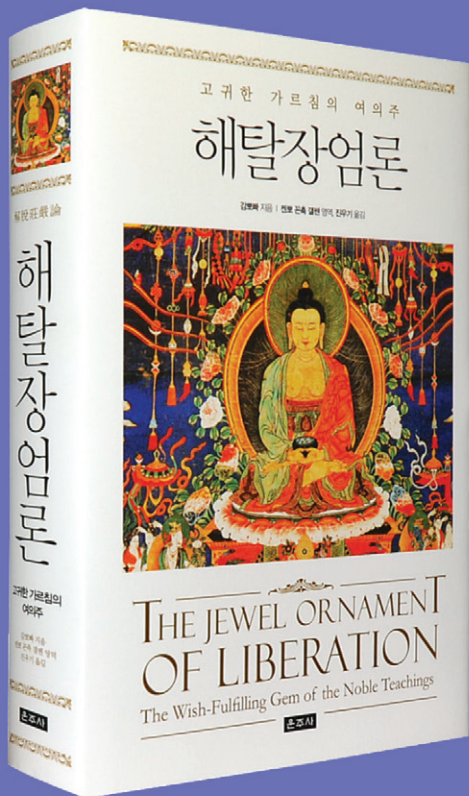
곡사 구성구석을 보여주는 사진자료와 애정 어린 손길로 눌러 쓴 마곡사의 이야기가 있다. 저자 한상길은 동국대 박물관 전임연구원, 대한불교조계종 불학연구소 전임연구원 등을 지냈고, 현재 동국대 불교학술원에 재직 중이다. 저자 홍대환은 호암박물관, 목아불교박물관 학예사와 포스코역사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을 지냈고, 현재 상명대학교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박재원 기자



보물 799호인 마곡사 5층석탑과 보물 802호 대광보전, 보물 801호인 대웅보전이 나란히 서있다.

티벳불교의 대표적 수행서이자 기본 교과서!



해탈장엄론

- 고귀한 가르침의 여의주 -

깨달음에 이르는 단계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티벳 최초의 람림서!

불도에 들어서면서부터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이루고 중생에게 회향하기까지의 전 단계를 이끌어주는 안내자!

티벳불교의 위대한 스승 김보빠의 가장 중요한 저서로, 밀라레파로부터 전승된 '마하무드라'와 아미샤로부터 비롯된 '보리도차제법'을 하나의 체계로 융합하였다!

김보빠 저, 진우기역 | 신국판 양장 | 628쪽 | 값 28,000원

사전식으로 구성한 불교 입문서!

사전의 역할뿐 아니라 불교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불교공부의 길잡이!



- 불교를 공부하려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표제어를 선정하고, 그 표제어와 관련된 다른 항목들도 함께 설명함으로써 표제어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제반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알 수 있게 하였다.
- 각 표제어들이 경전이나 논서, 선어록 등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찾아 제시함으로써 그 의미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곽철환 편역 | 국판 양장 | 404쪽 | 값 20,000원

